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家具 연구

조 시 내*

- I. 머리말
- II.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제작 배경
- III.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排設과 양식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宮中 家具는 궁중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통칭하며, 엄격한 궁중 규범과 신분 계층의 高下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궁중 가구는 궁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일상생활용 가구와 국가적인 행사였던 儀禮에 사용했던 의례용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미술사 분야에서 가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유물이 현존하는 수납 및 문방가구를 포함한 일상생활용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¹ 조선의 통치이념이었던 禮治를 구체적으로 실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연구원

¹ 家具를 포함한 우리나라 木工藝 관련 연구로는 김삼대자, 「李朝時代 燈燭器具에 對한 考察」(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_____, 「朝鮮時代 文房諸具」, 『朝鮮時代文房諸具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92); _____, 「文獻으로 본 나전칠기의 始原」, 『考古歷史學志』 16(동아대학교 박물관, 2000), pp. 497-509; _____, 「한국 전통가구의 이해」, 『특별문화강좌』 9(궁중유물전시관, 2001); _____, 「운현궁 생활유물」, 『운현궁 생활유물』

천하는 五禮儀式에 사용되었던 의례용 가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중 의례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은 『國朝五禮儀』와 같은 의례서를 통해 특별히 마련한 제작 규범이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의례가 있을 때마다 제작되었던 각종 儀軌에도 圖說의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의례용 가구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풍부한 실정이다.

특히, 궁중 宴享의 전모를 기록한 『進宴儀軌』, 『進饌儀軌』의 도설 및 기록은 궁중 연향용 가구의 제작 장인의 체제와 가구의 용도 및 排設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을 밝히는 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제국기 설행된 연향관련 의례들의 기록과 도설을 기반으로 궁중 연향용 가구를 제작한 장인들의 체제 및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연향이 성행하며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이 담겨 있는 연향 관련 의례의 제작 배경을 짚어 보고자 한다.

II.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제작 배경

1. 궁중 연향의 성행과 儀軌

궁중 연향은 크게 進宴, 進饌, 進爵으로 구분되며, 진연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진찬은 왕실 가족의 기념일이 있을 때, 진작은 왕·왕비의 작위를 높일 때 행하였던 잔치로 규모로 보면 진연이 가장 크고, 진찬, 진작의 순이었다.² 조선조 오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국가의 식으로서의 연향은 대한제국기에는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왕권 강화를 꾀하는 정치·사

I(서울역사박물관, 2003); _____, 「한국의 전통 목가구」, 『나무의 방』(서울역사박물관, 2007); 최공호, 「朝鮮末期와 近代期の 螺鈿漆器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김미나, 「朝鮮後期 文房家具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박영규, 「朝鮮朝 木家具의 特性」, 『조선목가구대전』(호암미술관, 2002), pp. 214-223; 최윤정, 「朝鮮時代 木製坐具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등이 있다.

² 궁중 연향에 대한 개념은 김종수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에서 진풍정, 진연, 진찬, 진작의 개념을 건국(1392)-세조대(1455-1468), 성종대(1469-1494)-연산군대(1494-1506), 중종대(1506-1544)-인조대(1623-1649), 효종대(1649-1659)-갑오경장(1894)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민속원, 2003) 참조.

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였으며 특히 광무개혁 중에는 왕실 의례의 회복과 왕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주 거행되었다. 辛丑年(1901)과 壬寅年(1902)의 잇따른 연향은 고종과 황태자 모두 왕실행사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황제의 정치적 역량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였다.³ 대한제국기의 연향은 짧은 기간 동안 자주 거행되었고, 규모가 컸던 만큼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어 많은 비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의 연향이 미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후식에서 황제식으로 변천하는 의미가 있고, 간행된 연향 관련 의례의 기록과 圖說은 연향시 사용되었던 器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향 관련 의례로는 크게 『進宴儀軌』, 『進饌儀軌』, 『進爵儀軌』가 있으며 仁祖代 인목대비를 위한 內宴을 기록한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豊皇都監儀軌』부터 1902년(광무 6) 『壬寅 進宴儀軌』까지 총 20종이 남아있다(표 1). 연향 관련 의례는 정조대 『園行乙卯整理儀軌』 이후 활자본으로 찍어내고 도설을 판화로 제작하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⁴ 19세기에 이르면 의례의 명칭이 『進宴儀軌』, 『進饌儀軌』로 자리 잡게 된다.⁵ 반면, 대한제국기에는 진찬이라는 용어보다 한 단계 격상된 진연을 사용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대한제국기 연향 관련 의례는 19세기 의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01년(광무 5)의 『辛丑 進宴儀軌』에서 대한제국 선포 후 개편된 직제명이 드러나고, 몇몇 용어가 황제국에 합당한 격상된 용어로 변경되며 행사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에서도 의장의 변화가 눈에 띄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위에 오른 이후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례 및 의례에도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⁶

³ 고종은 초기부터 陵幸, 親耕儀禮, 尊號加上 등 왕실 행사를 주도하면서 親政 체제를 구축하며 왕권을 회복했으며,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광무 5년(1901)의 현종비 명헌태후의 71세를 기념하는 진연과 광무 6년(1902)의 고종 51세가 되는 것과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진연 등을 성대하게 행하여 대한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선대 국왕과 고종에게 존호를 올려 왕권 강화를 꾀하였다. 지두환, 「高宗代 進宴 儀禮의 性格」,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3(민속원, 2005), pp. 14-15.

⁴ 正祖代 『園行乙卯整理儀軌』를 기점으로 하여 의례를 활자본으로 대량 찍어내기 시작하였으며 進饌圖·모才圖·綵花圖·器用圖·服飾圖 등을 卷首에 圖說의 형태로 실어서 당시 연향의 정경을 생생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향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서술한 뒤, 이를 크게 1방, 2방, 3방의 업무로 나누고 그 다음 別工作·內資寺·內瞻寺·禮賓寺·司畜屠 등의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서술하던 체제가 『園行乙卯整理儀軌』부터 항목별로 서술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한영우, 「조선시대 儀軌 편찬과 現存 儀軌 조사연구」,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 목록』(서울大學校 奎章閣, 2002), pp. 15-17.

⁵ 19세기에는 『進宴儀軌』보다 『進饌儀軌』가 활발히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순조대 이후 가장 큰 연향을 지칭했던 진연이라는 명칭 대신 진찬 또는 진작의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잔치의 규모와 의식의 내용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검소한 잔치의 명칭을 내세움으로써 왕실 행사의 명분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조경아, 「純祖代 模才 創作樣相」, 『韓國音樂史學報』 31(한국음악사학회, 2003), p. 279.

표 1 현존하는 연향관련 의궤의 종류와 내용

연번	儀軌名	製作年代	내용
1	豊皇都監儀軌	인조대	인목대비를 위한 內宴
2	己亥 進宴儀軌	숙종 45년(1719)	肅宗 耆老所 入社
3	甲子 進宴儀軌	영조 20년(1744)	英祖 50歲 生辰耆老所入社 紀念宴
4	授爵儀軌	영조 41년(1765)	英祖 71歲 生辰 在位 41年 紀念宴
5	園行乙卯整理儀軌	정조 19년(1798)	惠慶宮 回甲 頌壽紀念宴
6	己巳進表裏進饌儀軌	순조 9년(1809)	惠慶宮 回嘉禮宴
7	惠慶宮進饌所儀軌	순조 9년(1809)	惠慶宮 回甲 紀念
8	慈慶殿進爵整禮儀軌	순조 27년(1827)	純祖, 純元王后 尊號紀念宴
9	戊子 進爵儀軌	순조 28년(1828)	純元王后 四旬生辰 頌壽宴
10	純祖己丑進饌儀軌	순조 29년(1829)	純祖 四旬生辰 登極紀念宴
11	戊申 進饌儀軌	헌종 14년(1848)	王大妃四旬, 六旬頌壽宴
12	戊辰 進饌儀軌	고종 5년(1868)	大王大妃 神貞王后 趙氏 회갑연
13	癸酉 進爵儀軌	고종 10년(1873)	神貞王后 왕대비 책봉 40주년 기념
14	丁丑 進饌儀軌	고종 14년(1877)	神貞王后 七旬 경축연
15	丁亥 進饌儀軌	고종 24년(1887)	神貞王后 八旬 경축연
16	壬辰 進饌儀軌	고종 29년(1892)	高宗의 望五와 등극 30년 경축
17	辛丑 進饌儀軌	광무 5년(1901)	明憲太后 洪氏의 71세 生辰 경축
18	辛丑 進宴儀軌	광무 5년(1901)	高宗皇帝의 滿五旬之慶年 頌祝
19	壬寅 進宴儀軌	광무 6년(1902. 4)	高宗의 誕生 50년 기념
20	壬寅 進宴儀軌	광무 6년(1902. 11)	고종 望六

이 논문에서는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로 제작된 1887년 『丁亥 進饌儀軌』부터 1902년

⁶ 대한제국기에는 의궤의 새로운 항목들이 첨가가 되거나 항목의 이름이 바뀌어 형식상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황제의 각종 조칙이 실렸던 「詔勅」, 進宴廳, 典膳司, 儀軌廳 등에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문건들을 일컫는 「奏本」, 진연청에서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관아에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문건들이 기록되었던 「照會」,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내는 명령인 「訓諭」, 연향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서 주고받았던 공문인 「來牒」 등은 대한제국기 진연, 진찬의궤에서만 보이는 것이었다.

11월 『壬寅 進宴儀軌』까지 총 6건을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아 대한제국기 행해졌던 진연 및 진찬에서 사용되었던 가구의 제작 체제 및 가구 양식을 살펴 볼 것이며, 경우에 따라 참고할 만한 기록이 있는 영조조의 『甲子 進宴儀軌』를 비롯한 몇몇 의례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2. 가구 제작 장인의 체제

궁중 연향용 가구의 장인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공예품과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진연, 진찬의례에는 장인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의례 기록을 기반으로 왕실 공예품 제작 장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⁷

일찍이 조선시대 법령집인 『經國大典』에는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공장들을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나누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가구 제작과 관련한 경공장들의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木匠의 경우 왕실 물품을 제작했던 상의원에는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고 선공감과 군기시를 중심으로 소속되고 있어 목장은 가구를 제작하는 小木이 아니라 大木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표 2).⁸ 그러나 실제로 목장은 소목

표 2 각 기관별 가구 관련 京工匠의 인원 분포⁹

분류	工曹	尙衣院	軍器寺	繕工監	校書館	奉常寺	掌樂院	內需寺	造紙署	內資寺	內瞻寺	歸厚署
木匠	·	·	4	60	2	·	·	2	2	·	·	4
彫刻匠	2	4	·	10	8	·	·	·	·	·	·	·
漆匠	2	8	12	·	·	·	·	·	·	·	·	·
螺鈿匠	·	2	·	·	·	·	·	·	·	·	·	·
油漆匠	·	2	2	·	·	·	·	·	·	·	·	·
竹匠	2	·	·	20	·	·	·	·	·	·	·	·
竹梳匠	2	2	·	·	·	·	·	·	8	·	·	·

⁷ 의례를 통한 왕실 공예품 장인 연구로는 장경희, 「조선후기 흥례도감 장인 연구」, 『미술사논단』 8(한국미술연구소, 1999), pp. 181-212; _____, 「朝鮮後期 玉工藝匠人 研究」, 『미술사연구』 15(미술사연구회, 2001), pp. 109-149가 대표적이다.

⁸ 윤국일, 『역주 경국대전』(여강, 2000), pp. 295-314.

⁹ 『經國大典』 卷六, 「工典」條를 기초로 정리.

과 대목으로 분리된 匠色으로서 소목장이 칠장, 조각장 등과 함께 가구를 제작하였다.

영조 20년 『甲子 進宴儀軌』의 왕에게 공사를 보고하는 문서였던 啓辭를 모아 정리한 「啓辭秩」에는 진연청에서 차출한 소목장, 조각장, 칠장 등의 명단과 함께 연향에 참여한 날 수에 따라 20일 이상은 1등, 15일 이상은 2등, 8일 이상은 3등으로 장인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¹⁰ 이후 19세기 진연, 진찬의례에서는 「賞典」條에 일괄적으로 연향을 준비했던 임시도감인 진연청, 진찬소와 물품 조달을 담당했던 戶曹, 대한제국기에는 궁내부에 소속되었던 장인들의 명단과 처우에 관한 기록이 있다(표 3).

대한제국기 전후 제작된 의례의 「賞典」條의 기록을 정리한 <표 3>을 살펴보면 1887년 丁亥年 진찬의 기록에는 소목장, 조각장, 칠장 등의 가구 제작 匠色이 확인되며 임시도감인 진찬소에 소속된 장인들은 등급에 따라 무명과 베를 차등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조의 관리 아래 있었던 장인들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장인들은 18세기 후반부터는 왕실 물품을 제작하였던 京工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외공장의 수가 증가하여 궁중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예품을 왕실 소속 관청에서 제작한다기보다 민간 수공업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되는데,¹¹ 이러한 수공업 체제의 변화가 연향을 비롯한 궁중 의례에 소용되는 물품을 제작하는 체계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즉, 연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열리는 특별한 행사였기 때문에 연향의 규모와 가구의 수요를 조사하여 진연청과 진찬소에서 장인을 차출하여 참여한 날수에 따라 적당량의 녹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한제국 선포 직전의 丁亥年(1887)의 『進饌儀軌』부터 대한제국기 마지막 진연을 기록한 壬寅年(1902. 11) 『進宴儀軌』까지의 「賞典」에 기록된 가구 관련 장인의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에는 戶曹와 진찬소,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궁내부와 진연청 및 진찬소에서 장인의 녹을 각각 나누어 지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종 31년(1894)부터 이루어진 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六曹 중심의 행정 체제에서 왕실 업무를 맡아 보았던 궁내부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의정부로 크게 나뉘게 되면서 장인을 비롯한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한 호조의 업무가 궁내부로 일부 개편되어 담당하였던 것이다. 가구 제작 장인들의 녹봉은 주로 무명과 베로 지급되었는데 일부 장인들의 경우 帖加라는 시상이 확인된다(표 3 참조). 帖

¹⁰ 進宴廳工匠別單 二十日以上一等, 十五日以上二等, 八日以上三等, 小木匠 車世益等五名 …… 彫刻匠韓世文等三名 …… 以上一等 …… 小木匠金壽漢等三名 漆匠金尙輝等六名 …… 以上二等 …… 彫刻匠高漢興等三名 …… 小木匠安石柱等十名 假漆匠李成柱等二名 …… 漆匠李夢致等五名 …… 以上三等. 『甲子 進宴儀軌』 卷一 「啓辭秩」 三十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4360).

¹¹ 金信雄, 「朝鮮時代の手工業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94), pp. 102-105.

표 3 연향에 참여한 장인의 명단 및 시상

관련의례	소속관청	匠色 및 명단	등급	처우
『丁亥 進饌儀軌』 (1887) ¹²	진찬소	소목장 김흥이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가칠장 안택인 외	3등	무명 1필
		조각장 김학승 외	3등	무명 1필
	호조	가칠장 김동훈	邊首	체가(帖加)
		칠장 김억년 외	·	정축년 의거 시상
소목장 백성원 외	·	정축년 의거 시상		
『壬辰 進宴儀軌』 (1892) ¹³	진찬소	소목장 김학신	都邊首	무명 1필, 배 1필
		소목장 김학신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가칠장 윤대식 외	3등	무명 1필
		칠장 이춘길 외	3등	무명 1필
『辛丑 進饌儀軌』 (1901) ¹⁴	궁내부	소목장 박원식 외	·	무명 1필
		칠장 김삼보 외	·	무명 1필
		두석장 김태진	·	무명 1필
	진찬소	소목장 정기준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체가
		가칠장 홍진태 외	3등	무명 1필
		조각장 김학득 외	3등	무명 1필
『辛丑 進宴儀軌』 (1901) ¹⁵	궁내부	두석장 김태환 외	·	체가
		소목장 김순규 외	·	체가
		칠장 김광주 외	·	체가
	진연청	소목장 정기준	2등	체가
		두석장 이수만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조각장 김한득 외	3등	무명 1필, 체가
		칠장 홍진태 외	3등	무명 1필, 체가
		가칠장 김성화 외	3등	무명 1필, 체가
『壬寅 進宴儀軌』 (1902. 4) ¹⁶	궁내부	두석장 김태환 외	·	무명 1필
		소목장 김한준 외	·	무명 1필
		칠장 이한식 외	·	무명 1필
		조각장 한창주 외	·	무명 1필
	진연청	소목장 김성남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두석장 김익환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조각장 김재환 외	3등	무명 1필, 체가
		칠장 홍진태 외	3등	무명 1필
가칠장 안지현 외	3등	무명 1필		
『壬寅 進宴儀軌』 (1902. 11) ¹⁷	궁내부	두석장 김태환 외	·	무명 1필
		소목장 김한준 외	·	무명 1필
		칠장 이산식 외	·	무명 1필
		조각장 한창주 외	·	무명 1필
	진연청	소목장 김성남 외	2등	무명 1필, 배 1필
		칠장 홍진태 외	3등	무명 1필
		가칠장 안지현	3등	무명 1필

III.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排設과 양식 특징

1. 가구의 배설

연향에서 가구는 연회장의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문자, 도설, 기록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 철저히 준용되었다.¹⁹ 임인년 11월의 진연 준비과정과 의례의 순서를 기록한 『壬寅 進宴儀軌』 「儀註」條에는

중화전 진연의 …… 어좌는 중화전 북벽에 남향으로 배설하고 …… 황태자의 자리는 어좌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한다.²⁰

수주정과 다정은 전 안의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배설하고 …… 황태자의 주정과 다정은 전각의 동쪽 가까이 배설한다.²¹

라고 기록하여 가구가 참연자의 위계와 서열에 따라 방위에서의 上下를 고려하여 배치되었음을 알려준다. 가구의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이루어진 반차도인 『壬寅 進宴儀軌』의 〈中和殿進宴班次圖〉와 〈中和殿進宴圖〉에도 어좌와 황태자 자리가 남·동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1). 이러한 배치는 연향 의례를 병풍으로 제작한 기록화를 통해서도 황제를 상징하는 어좌가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남향으로 황태자의 자리는 동쪽에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도 2). 이것은 『禮記』에서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므로 태양을 바라보며 일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남향해야 한다고 한 것과 해가 뜨는 동쪽을 서쪽보다 우위에 두었던 점과 관련이 깊으며,²² 연회장에서 가구의 배치가 남>동>서>북 순으로 이루어져 가구의 배치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위의 준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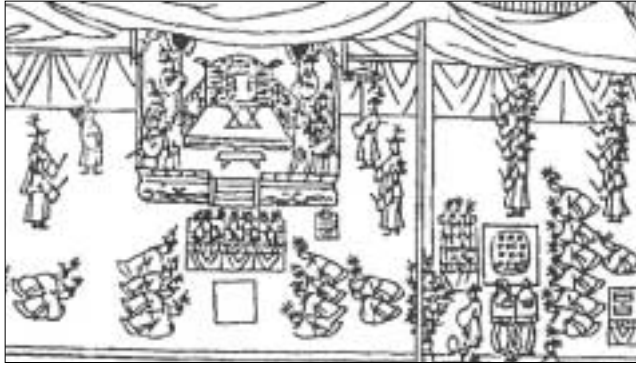
연회장에 배치된 가구들은 용도에 따라 배설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다. 『辛丑 進宴儀軌』

¹⁹ 연향용 가구의 배설은 의례의 기록, 도설 그리고 해당 연향을 그린 기록화까지 모두 현존하여 확인 가능한 『辛丑 進宴儀軌』(1901), 『壬寅 進宴儀軌』(1902, 11)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²⁰ 中和殿進宴儀 …… 御座於中和殿北壁南向 …… 皇太子座於御座東南西向. 『壬寅 進宴儀軌』 卷一, 「儀註」四十八(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6).

²¹ 中和殿進宴儀 …… 壽酒亭及茶亭於殿內近南北向 …… 皇太子酒亭及茶亭於殿內近東. 『壬寅 進宴儀軌』 卷一, 「儀註」四十九(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6).

²² 李相玉 譯, 『禮記』 下, 「향음주의」(明文堂, 2003), pp. 1539-1562.



도 1 〈中和殿進宴圖〉,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2 〈咸寧殿進宴圖〉, 《壬寅進宴圖屏》,
1902년, 국립국악원.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 524.)

의 「排設」條의 기록은 연회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배치되었던 황제의 평상을 龍平床, 황태자의 평상은 蓮平床으로 구분하였고 대한제국 선포를 기점으로 용평상은 조선시대 朱漆에서 황제의 색상인 黃漆로, 연평상은 黑漆에서 朱漆로 색상이 변화하여 위계가 격상되었다.

함녕전외진연시배설위차

어좌 …… 용평상 1좌 아래에 배설할 황화 2장을 붙인 돛자리 1부, 위에 배설할 용문단석 1
건 (모든 선은 황주)

함녕전익일회작시배설위차

예좌 …… 연평상 1좌(주칠한다) 아래에 배설할 채화 2장을 붙인 돛자리 1부, 위에 배설할
채화단석 1건 (모든 선은 자주색의 토주)²³

연회시 이동하기 용이하게 고안되었던 交椅는 발을 올려놓았던 踏掌과 함께 사용되었

²³ 咸寧殿外進宴時排設位次

御座 …… 龍平床一坐 下排黃花二張付地衣一浮 上排龍紋單席一件 (并縮黃紬)

咸寧殿翌日會酌時排設位次

睿座 …… 蓮平床一坐(朱漆) 下排彩花二張 付地衣一浮 上排彩花單席一件 (并縮紫的吐紬). 『辛丑 進宴儀軌』 卷三, 「排設」 二·八(규장각 소장본,奎14464).

다. 황제의 것은 龍交椅, 황태자의 것은 平交椅로 구분하고 용교의는 황칠을, 평교의는 주칠을 하였으며 함께 배설하던 양탄자와 방석 등도 황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함녕전외진연시배설위차

어좌…… 용교의 1좌 (개복황전 1건 황화주 좌자 1건, 황화 2개의 무늬를 넣고 선은 황주를 두른 양좌자 1건, 황화석을 간 답장 1좌를 갖춘다)

함녕전익일회작시배설위차

예좌…… 평교의 1좌 (주칠을 한다. 흥전 1건, 의자 1건, 좌자 1건, 답장 1건을 갖춘다)²⁴

용평상과 용교의는 각자 따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배설되었는데, 『英祖實錄』에는 중국의 칙사를 맞이하는 행사를 준비하며 평상을 설치하고 교의를 안치한다는 기사가 있다.

임금이 涵仁亭에 나아가 左右相과 遠接使를 소견하고, 말하기를,

“勅使를 맞이하여 弔問을 받을 때에 假魂殿을 함인정으로 정하였는데, 處地의 좌우에 補階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니, 호조판서 李宗白이 아뢰기를,

“보게만 설치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할 터이니, 주추를 박고 기둥을 세워서 건물 1間을 더 만들고, 이어서 平床을 설치하여 交椅를 안치하며, 또 紅綉帳을 더하여 隱映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²⁵

위의 기사는 평상 위에 교의를 얹어 사용하였던 예를 보여주며 특히 중요한 사신을 접대하거나 연향과 같은 궁중 의례시에는 용평상 위에 용교의를 안치하여 함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壬寅 進宴儀軌』의 〈中和殿進宴圖〉와 임인년 진연을 병풍으로 제작한 〈壬寅進宴圖屏〉의 〈咸寧殿進宴圖〉 부분에도 황화주 돛자리를 간 평상 위에 황색 양탄자를 얹은 교의

²⁴ 咸寧殿外進宴時排設位次

御座…… 龍交椅一坐 (蓋覆黃氈一件 黃禾紬座子一件 涼座子黃花二紋縮黃的紬一件 踏掌黃花席一坐具)

咸寧殿翌日會酌時排設位次

睿坐…… 平交椅一坐 (朱漆 紅氈一件 椅子一件 座子一件 踏掌一件具). 『辛丑 進宴儀軌』 卷三, 「排設」 二-八 (규장각 소장본, 奎14464).

²⁵ 『英祖實錄』 卷90, 英祖 33年 8月 4日.

를 안치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도 2).

용평상, 용교의와 더불어 황제와 황태자의 가구로 방위에 맞게 배치되었던 후는 술과 관련한 여러 기물이 배설되었다.

만경전야진찬시배설위차

동조어좌 …… 수주정 1좌 (준대와 용준대를 갖추고, 옥병, 은병은 뚜껑을 갖춘다)

대전시좌 …… 주정 1좌 (준대와 용준대를 갖추고, 은일월병은 뚜껑을 갖추고 은작, 옥배대를 갖춘다)²⁶

함녕전외진연시배설위차

어좌 …… 수주정 1좌 (황칠을 한다. 아가상준대 1좌, 각장좌면지 1장, 덮개용 황색 보자기 1건,²⁷ 뚜껑이 있는 은도금일월병 1좌, 은도금한 덮개와 받침대 1좌, 모두 상방. 손잡이가 있는 옥잔과 받침대 1좌, 은작 1개 모두 내하. 뚜껑이 있는 용준 1좌 전선사)

황태자시좌 …… 주정 1좌 (주칠을 한다. 아가상준대 1좌, 곡수각장좌면지 1장, 덮개용 홍색 보자기 1건, 뚜껑이 있는 은도금일월병 1좌, 은도금한 덮개와 받침대 1좌, 모두 상방. 손잡이가 있는 옥잔과 받침대 1좌, 은작 1개 모두 내하. 뚜껑이 있는 용준 1좌 전선사)²⁸

위의 기록에서 조선시대 壽酒亭은 주칠을 하고 대한제국기에는 황칠을 한 阿架末樽臺라고 하였다. 수주정 위에는 座面紙를 깔고 기물을 배설하였는데 대한제국기에 배설기물이 다양해지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수주정에는 은병, 옥병, 술을 뜨는 도구인 은작,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술잔, 은잔, 무소뿔처럼 생긴 술잔, 손잡이가 달린 은잔을 함께 배설한 반면 대한제

²⁶ 萬慶殿夜進饌時排設位次

東朝御座 …… 壽酒亭一坐 (樽臺龍樽臺具 玉瓶銀瓶蓋具)

大殿侍坐 …… 酒亭一坐 (樽臺龍樽臺具 銀日月瓶蓋具銀勺玉杯臺具). 『丁亥 進饌儀軌』 卷三, 「排設」 七-八(규장각 소장본,奎14446).

²⁷ 蓋覆黃水曲袱은 덮개용 황색의 水禾紬 보자기로 水禾紬는 품질 좋은 비단의 한 가지이다.

²⁸ 咸寧殿外進宴時排設位次

御座 …… 壽酒亭一坐 (黃漆 阿架末樽臺一坐 各張座面紙一張 蓋覆黃水曲袱一件 銀鍍金日月瓶蓋具一坐 銀鍍金杯蓋臺具一坐 并尙方 玉有耳盃臺具一坐 銀勺一箇 并內下 龍樽蓋具一坐 典膳司)

皇太子侍坐 …… 酒亭一坐 (朱漆 阿架末樽臺一坐 曲水各張座面紙一張 蓋覆紅水紬袱一件 銀鍍金日月瓶蓋具一坐 銀鍍金盃蓋臺具一坐 并尙方 玉有耳盃臺具一坐 銀勺一箇 并內下 龍樽蓋具一坐 典膳司). 『辛丑 進宴儀軌』 卷三, 「排設」 二-三(규장각 소장본,奎14464).

국기에는 황칠의 수주정 위에 은도금한 日月瓶과 옥잔, 연꽃이 새겨진 옥잔과 포도잎 모양 반침대 등 연향의 규모가 컸던 만큼 배설 기물이 늘어나 황제국의 위용에 맞게 변화하였다.

황제가 사용했던 용평상, 용교의, 수주정 등과 같이 특수한 배설방법을 보이는 기종으로 등화구인 木畫龍燭을 꼽을 수 있다.

만경전진찬시배설위차

동조어좌 …… 목화룡촉 1쌍 (심홍촉 1쌍은 모두 본청에서 새로 구비한다. 두석대촉대 2좌는 호조, 유결홍목 2필은 제용감. 부 2좌는 상방)²⁹

함녕전내진연시배설위차

어좌 …… 목화룡촉 1쌍 (앞에 배설할 심홍촉 1쌍은 본청에서 새로 준비하여 구비한다. 두석대촉대 2좌는 배설방. 부 2좌는 모두 상방)³⁰

목화룡촉은 심홍촉을 구비하고 두석으로 만든 대촉대에 꽃아 촉대부에 놓아 사용되었는데 밤에 열리는 夜宴과 낮에 열리는 진연에서의 사용법이 다르다. 목화룡촉은 밤에 열리는 야연에서는 목화룡촉에 붉은 양초인 心紅燭을 꽂고 심홍촉에 불을 붙여 연회장 곳곳에 불을 밝히는 축의 고유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촛불이 필요 없는 낮에 진행되는 연향에서도 목화룡촉은 황제의 자리 맞은편에 배치되어 불을 밝히는 용도가 아닌 연향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한제국기 연향용 가구의 배설은 연향 의례가 조선시대 제후식에서 대한제국기 황제식으로 바뀌는 만큼 가구를 비롯한 배설 기물들의 색상도 황색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수주정의 경우 배설기물의 종류가 늘어나 황제국의 위용에 맞게 장엄 기물도 변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의례에 기록된 정확한 배설 방법은 가구의 조형적인 특징에 의해 유추하던 가구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 주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진연, 진찬의례의 도설과 현존

²⁹ 萬慶殿進饌時排設位次

東朝御座 …… 木畫龍燭一雙 (心紅燭一雙 并本所新備 豆錫大燭臺二坐 戶曹 維結紅木二疋 濟用監跗二坐 尙方). 『丁亥 進饌儀軌』卷三, 「排設」七-八(규장각 소장본,奎14446).

³⁰ 咸寧殿內進宴時排設位次

御座 …… 木畫龍燭一雙 (前排心紅燭一雙 本廳新措備 豆錫大燭臺二坐 排設房 跗二坐 并尙方). 『辛丑 進宴儀軌』卷三, 「排設」五(규장각 소장본,奎14464).

가구의 비교를 통해 대한제국기와 조선시대 연향용 가구의 조형 차이와 양식 특징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중국의 영향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현존 유물로 보는 궁중 연향용 가구

궁중에서 연향이 열릴 때 사용했던 가구의 종류는 床卓에서부터 椅子 그리고 불을 밝히는 燈火具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圖說로 그려진 것만 약 30여 종이었으며, 음식이나 각종 기물을 놓는데 사용했던 상탁, 참석자들이 앉는 용도로 사용했던 좌구, 불을 밝히는 용도의 등화구로 분류할 수 있다(표 4).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는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기 궁중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창덕궁을 비롯한 궁관리소를 중심으로 현존 예가 파악되고 있다.

1) 床卓-盤

연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가구는 盤이며 彫刻大圓盤이 대표적이다. 먼저 1829년 순조 『己丑 進饌儀軌』에서는 다리에 卍字를 새긴 朱漆大圓盤의 도설이 등장하다가(도 3) 1848년 『戊申 進饌儀軌』부터 彫刻大圓盤의 도설이 등장하여 다리에 꽃문양을 투각한 양식

표 4 궁중 연향용 가구의 종별 및 분류³¹

家具의 分類	家具名	
床卓	盤	彫刻大圓盤, 倭盤
	案床	寶案*, 饌案*, 致詞案*, 爐烟床*, 跏床
	亭	酒亭*, 壽酒亭*, 茶亭*
	卓	進爵卓*, 花柄卓, 香座兒
	臺	燭臺跏, 梅花機, 中臺
坐具	交椅*, 龍平床*, 踏掌*	
燈火具	琉璃燈, 龍燭*	

³¹ <표 4>는 대한제국기를 전후하여 실행되었던 『丁亥 進饌儀軌』, 『壬辰 進饌儀軌』, 『辛丑 進饌儀軌』, 『辛丑 進宴儀軌』, 『壬寅 四月 進宴儀軌』, 『壬寅 十一月 進宴儀軌』의 圖說에 나오는 가구를 정리한 것이며, 가구 명칭 뒤의 *로 표기한 종별에 관해서는 「排設」條에서 그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도 3 <朱漆大圓盤>, 1829년, 『己丑 進饌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4 <彫刻大圓盤>,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5 <朱黑漆透刻圓形盤>, 19세기, 나무에 칠, 높이 27.7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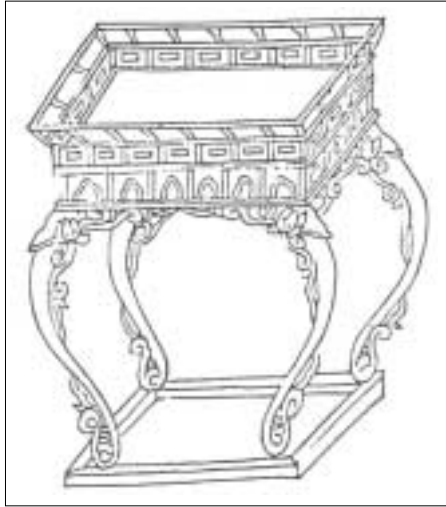


도 6 <朱漆圓盤>, 19세기, 나무에 칠, 높이 34.8cm, 日本 高麗美術館.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소장③ 한국문화재』, 1997,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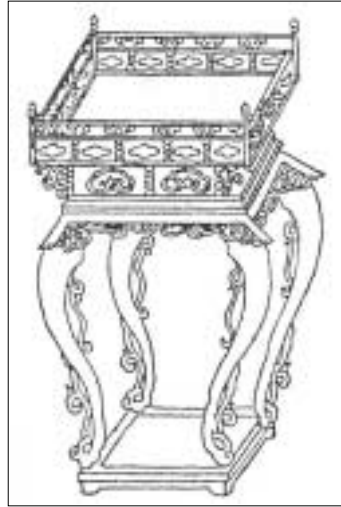
으로 정립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유지된다(도 4).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朱黑漆透刻圓形盤>은 둥근 큰 천판과 12각의 다리로 구성되며 다리에 卍字, 칠보문 등을 투각하여 19세기 초반 연향에서 사용되었던 <朱漆大圓盤>의 형태를 보여주며(도 5), 일본 고려미술관의 <朱漆圓盤>은 당초문 투각 장식의 다리를 가진 대한제국기 조각대원반의 도설과 일치한다(도 6).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소반은 궁중에서 일상생활시 사용하는 호족반과는 달리 연향 의례용으로 둥글고 큰 천판에 12각 혹은 8각의 다리를 가진 두리반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2) 床卓-亭

亭은 황제의 壽酒亭과 황태자의 酒亭으로 구분되었으며 일찍이 조선시대 『國朝五禮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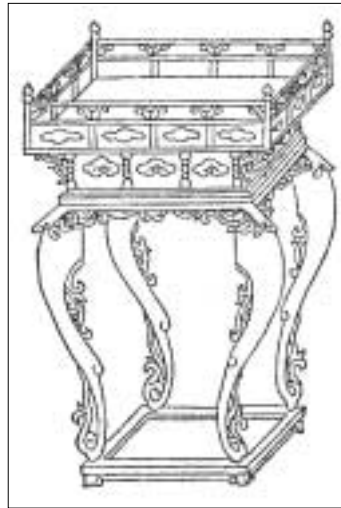
도 7 <壽酒亭>, 1827년, 『慈慶殿進爵整禮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8 <壽酒亭>,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9 <酒亭>, 1827년, 『慈慶殿進爵整禮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10 <酒亭>,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는 大酒亭으로 기록되었다. 대한제국기의 수주정이 난간을 가진 천판과 호족형 다리로 구성되어있던 반면 18세기 후반 수주정은 천판이 노출되어 있고 난간이 없는 형태였다가 1827년



도 11 <阿架床>, 19세기, 나무에 칠, 높이 111.0cm, 전주 경기전. (국립전주박물관, 『왕의 초상』, 2005, p.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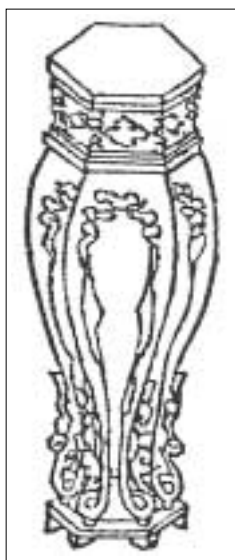


도 12 <黑漆阿架床>, 朝鮮, 나무에 칠, 높이 78.0cm,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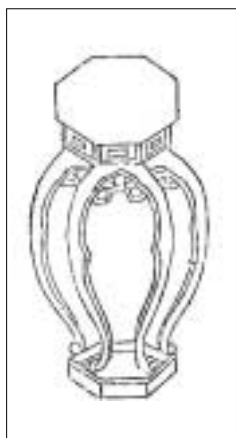
『慈慶殿進爵整禮儀軌』에서 난간이 생기기 시작한다(도 7). 1828년 『戊子 進爵儀軌』부터 대한제국기까지는 수주정의 양식이 정립된다(도 8). 대한제국기 황태자의 주정은 수주정과 거의 유사한 난간이 있는 阿架床의 형태이지만 조선시대 『國朝五禮儀』에는 난간이 없이 천판이 노출되어 있는 小酒亭으로 표현되었다. 주정은 1827년 『慈慶殿進爵整禮儀軌』까지 천판이 노출되다가(도 9) 1828년 『戊子 進爵儀軌』부터 대한제국기 주정의 형태로 정립되어 수주정과 주정 모두 1828년을 전후로 대한제국기까지 양식화된 모습을 보인다(도 10). 수주정과 주정은 현존 유물이 매우 드문 실정이며 태조 영정을 봉안했던 전주 경기전에 <阿架床>이 전한다(도 11). 경기전 소장 <아가상>은 대한제국기 황태자가 사용하였던 주칠 아가상으로 호족형의 다리에 당초문 조각 장식인 아가를 붙이고 안상문을 투공한 난간을 둘렀다. 반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黑漆阿架床>은 천판과 난간 장식이 손실되었으나 흑칠을 하였고 호족 형태의 다리에 정교한 아가 장식을 하여 조선시대 왕세자의 주정으로 사용되던 것임을 알 수 있다(도 12).

3) 床卓-香座兒

御座의 좌우에 배치되어 쬐을 놓았던 대한제국기의 香座兒는 육각의 천판과 당초문 조각인 아가를 붙인 호족형 다리로 구성되며 1848년 『戊申 進饌儀軌』부터 양식이 정립된다(도 13). 이와 비교하여 1827년 『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향좌아는 장식문양이 안상문이 아닌 사



도 13 <香座兒>,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14 <香座兒>, 1827년, 『慈慶殿進爵整禮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15 <香佐兒>,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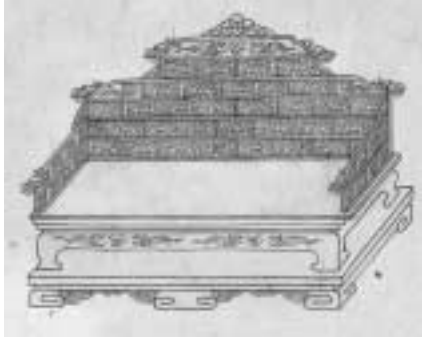


도 16 <朱漆香座兒>, 대한제국기, 나무에 칠, 높이 50.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7 <郭汾陽行樂圖> 향좌아 부분, 傅金得臣, 조선 후기, 絹本彩色, 143.9×123.6cm, 국립중앙박물관

각문양으로 시문되고 당초 조각인 아가 또한 다리의 안쪽 부분에만 장식되어 대한제국기 향좌아로 정립되기 이전의 양식이다(도 14). 연향 관련 의례는 아니지만 대한제국기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의 채색을 검비한 향좌아 도설은 현존가구와 비교할 수 있다(도 15). 도설과 일치하는 국립고궁박물관 <朱漆香座兒>는 본래 黃漆이 되어있었으나 보존처리 과정에서 안의 주칠이 들어나게 되어 대한제국 이후 주칠 위에 황칠을 덧입혀 사용했던 사실을 알려준다(도 16). 향좌아는 일찍이 입식생활을 했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기종으로 정조대 이후 궁중에서 유행하였고 순조대 이후 궁중 행사용 장식병풍으로 많이 그려졌던 <郭汾陽行樂圖>에 능화형의 천판과 높은 호족형 다리를 가진 가구가 등장하여 비교할 수 있다(도 17). <곽분양행락도>의 능화형 향좌아나 다양한 천판을 지닌 중국의 현존 향좌아와는 달리 우리의 향좌아는 의례용 가



도 18 <龍平床>,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19 <黃漆龍平床> 부분, 대한제국기, 나무에 칠, 높이 86.0cm, 창덕궁 인정전

구로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천판이 육각형으로 고정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4) 坐具-平床, 交椅

坐具類인 龍平床, 龍交椅는 양식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주칠에서 황칠로의 색상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기종이다.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에는 황칠과 주칠의 채색 도설이



도 20 <朱漆龍平床>, 대한제국기, 나무에 칠, 높이 84.0cm, 창덕궁 선정전

보이며 용평상의 길이가 7자 2치, 너비가 양자 9치의 규모이고 네 모서리 용두는 도금을 하며 뒤는 4층, 좌우는 3층의 구조로 난간의 격판에 모란과 박쥐를 새기고 물형에는 금물로 시문한다는 기록이 있어 규모, 문양 및 제작방법을 알 수 있다.³² 대한제국기 황칠로 의장이 변화된 모습은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 도설과 창덕궁 인정전 <黃漆龍平床>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 18, 19). <황칠용평상>은 5층으로 된 뒤 난간에 모란문을 투각하고 꼭대기에는 日雲文과 용머리를 장식하여 대한제국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상물로서의 의장을 갖추었다. 한편, 창덕궁 선정전의 <朱漆龍平床>은 창덕궁에서 사용하였던 가구를 보수한 것으로 네 귀의 용머리는 도금을 하고 뒤쪽은 4층, 좌우는 좌판까지 3층의 구조이다(도 20). 용평상의 3면 난간을

³² 龍平床 長七尺二寸 廣兩尺九寸 後高兩尺一寸 挾高一尺四寸 前高六寸 四隅龍頭鍍金 後四層 右三層 設欄干隔板 刻牡丹蝙蝠 並朱漆 物形施泥金. 『壬寅 進宴儀軌』 卷首, 「圖式」 四十七 (서울大學校 奎章閣 영인본, 1996).



도 21 <龍交椅>,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22 <朱漆龍交椅>, 대한제국기,
나무에 칠, 높이 91.0cm,
국립고궁박물관

투각한 문양은 왕의 건강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박쥐문, 모란문, 칠보문 등으로 의뢰의 도설 및 기록과 같다.³⁵

평상 위에 올려져 함께 배설되었던 용교의는 대한제국기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에는 踏掌이 연결된 구조로 나타난다(도 21).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의 용교의는 조선시대 공신 초상화의 교의처럼 고종의 어진을 도사할 때 사용되던 의례용 가구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朱漆龍交椅>는 전면에 주칠을 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日雲文과 모란이 투각된 등받이, 5마리의 박쥐문을 시문한 좌판 그리고 다리로 구성된다(도 22). 국립고궁박물관의 <黃漆龍交椅>는 답장이 떨어진 상태로 <주칠용교의>와 규모, 장식 문양이 같아 한 쌍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대한제국기 황제의 교의이다(도 23). 우리나라에서 교의는 연향과 같은 궁중 의례에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생활가구로 자리 잡아 발전하였다. 『三才圖會』의 <醉翁諸儀> 도설에는 교의가 중국 동한 말기부터 사용된 호상에서 유래하여 이미 궁정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며 명나라 대표적 교의 양식인 등받이가 둥근 圈交椅와 우리나라 궁중 연향의 용

³⁵ 창덕궁 선정전의 <朱漆龍平床>은 주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의 것인지, 대한제국 시기 황태자가 사용하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창덕궁에 남아있는 가구를 비롯한 유물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것들로서 대한제국 시기 궁중 연향의례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도 23 <黃漆龍交椅>, 대한제국기, 나무에 칠,
높이 91.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4 <黃花梨木交椅>, 명, 나무에 칠,
높이 101.0cm, 上海博物館

교의의 형태가 일맥상통하여 상호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도 24).

5) 燈火具-琉璃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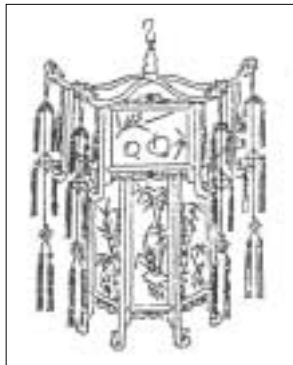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밤에 열리는 연향에서 전각의 처마 아래 걸어 연회장을 밝혔던 琉璃燈은 19세기 새롭게 등장하여 대한제국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엿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등이 보이는데 양의 뿔을 고아 투명하고 얇은 막으로 만든 羊角燈은 1828년 『戊子 進爵儀軌』부터 등장하여 대한제국기까지 유리등과 함께 사용된다. 絲燈은 명주로 만든 막을 씌운 형태로 1848년 『戊申 進饌儀軌』에만 보인다. 조선시대의 유리등은 1829년 『己丑 進饌儀軌』에 처음 등장하는데 양각등과 동일한 형태로 원통형 유리를 씌운 모양이다(도 25). 그러나 1848년 『戊申 進饌儀軌』부터는 직육면체의 형태의 목재로 만든 대에 사면을 유리로 두르고 화려한 꽃그림으로 장식된 형태로 정립된다(도 26). 유리등은 19세기 초반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불과 100년이 안되는 사이에 새롭게 생겨난 가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존의 양각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가 이후 용이한 사용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각 형태의 유리등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기의 유리등 도설과 일치하는 <琉璃四角掛燈>은 직육면체의 목재틀에 유리를 끼우고 안료와 금채로 난초, 나팔꽃, 매화 등을 그렸으며, 내부에는 초 받침대가 있고 그 상단에 고리형 쇠걸이가 있는 괘등이다(도 27). 한편, 『丁丑 進饌儀軌』의 육각



도 26 <琉璃燈>, 1902년 11월, 『壬寅 進宴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27 <琉璃六角掛燈>, 19세기, 나무에 유리, 높이 58.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5 <琉璃燈>, 1829년, 『己丑 進饌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28 <琉璃燈>, 1877년, 『丁丑 進饌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29 <琉璃六角掛燈>, 19세기, 나무에 유리, 높이 58.0cm, 국립고궁박물관

유리등 도설이 등장하며 국립고궁박물관 <琉璃六角掛燈>이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도 28). <유리육각패등>은 각 기둥에 걸기둥을 동자로 연결하고 각 유리판에는 향로, 과반, 화분 등의 문양으로 장식되었는데(도 29), 이러한 양식은 전형적인 중국 청나라 패등의 양식이며 유리등의 경우 새로 생겨난 기종이었기 때문에 청의 양식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양각등을 등화구로 사용하다가 새로 도입된 유리등을 궁중 연향에 적용하면서 우리만의 양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현존하는 유물과 의례 도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은 연향이 조선시대 제후식에서 대한제국기 황제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왕을 상징했던 주칠

과 왕세자를 상징했던 흑칠은 황제는 황칠, 황태자는 주칠로 위계가 격상하여 가구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좌구류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었으며 좌구는 의자라는 고유한 용도 외에도 배치만으로 황제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황제를 상징하는 색상과 더불어 龍文, 日雲文 및 다양한 길상문으로 장식되었다. 대한제국 선포를 기점으로 가구의 양식은 획기적으로 발전 및 변화하지는 않으나 조선시대를 걸쳐 점차 발전하여 대한제국기에 양식화된다. 이것은 고종이 칭제를 하고 황제국에 합당한 의례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시 명실상부한 황제의 예후를 갖추기에는 정치, 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부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확대된 연향의 규모에 맞게 가구를 배설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가구를 새단장하였으나 양식 면에서는 새로운 양식을 제정할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한제국기 연향이 명나라의 의례를 따른 만큼 대부분의 궁중 연향용 가구도 명의 영향을 받았으나, 유리등과 같이 새로 생겨난 기종의 경우 청나라의 예를 수용하기도 하여 예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진연, 진찬의례를 중심으로 宮中 宴享用 家具의 장인, 排設 방법 그리고 圖說과 현존유물을 비교하여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 특징을 살펴보았다. 궁중 연향은 禮治를 실천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조선시대 꾸준히 행해졌으며, 특히 대한제국기에 황실 권위의 재고와 황권 강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활발하게 설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기의 『進宴儀軌』, 『進饌儀軌』 또한 다수 간행되었고 이는 궁중 연향용 가구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한제국기 『進宴儀軌』, 『進饌儀軌』의 가구 관련 기록과 도설을 바탕으로 궁중 연향용 가구의 제작과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존하는 유물 수가 많지 않아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리가 없진 않으나 의례의 가구 도설과 현존 유물 양식의 일치하는 가구를 제작했던 장인들이 국가가 정한 이념적 규범에 맞추어 가구를 제작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궁중 화원들도 궁중 연향용 물품들에 적용된 규범이 변용되지 않도록 도설을 제작하여 이후 열리는 연향에서도 일정한 형태로 가구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가구의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유추했던 가구의 용도는 의례의 기록을 근거로 더 이상 추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로 입증되어 실용적인 공예품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해 주었다.

반면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의궤와 같은 중국 연향 의례용 가구에 대한 문헌이 현전하지 않고 진연, 진찬의궤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향용 가구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더욱 발굴하여 궁중 의례 전체에 해당하는 가구의 제작 상황 및 조형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연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궁중 목공예품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길 바란다.

* 주제어(key words) _ 가구(家具 Furniture), 의궤(儀軌 Uigwe[Royal Protocol]), 연향(宴享 Royal court banquet), 대한제국(大韓帝國 Korean Empire), 칠기(漆器 Lacquerware)

▣ 투고일 2009년 8월 19일 | 심사개시일 2009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29일 ▣

참고문헌

1. 史料

- 『經國大典』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
『國朝五禮儀』
『純祖己丑進饌儀軌』
『辛丑 進宴儀軌』
『辛丑 進饌儀軌』
『英祖實錄』卷60, 90.
『園行乙卯整理儀軌』
『慈慶殿進爵整禮儀軌』
『丁亥 進饌儀軌』
『壬寅 進宴儀軌』
『壬辰 進饌儀軌』

2. 國文

〈單行本〉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3.
박병선, 『조선조의 의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法制處, 『國朝五禮儀』 1-5, 1982.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례해제집 1』, 2003.
_____,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2005.
서울대학교圖書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上, 1981.
서인화 외,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 병풍』, 국립국악원, 2000.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出版部, 1990.
윤국일 외, 『국역 경국대전』, 여강, 2000.
이성미 외, 『조선 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 전통예술원 편, 『국역현종무신진찬의궤』, 민속원, 2005.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附 補遺篇, 1984.
- _____,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 권1』, 민속원, 2003.
- _____,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 권2』, 민속원, 2005.
- _____,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 권3』, 민속원, 2005.

〈圖錄〉

-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2001.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도록』, 200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 國立中央博物館, 『18世紀의 韓國美術』, 1993.
- _____, 『새천년 새유물展』, 2000.
- _____,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書畫遺物圖錄』第十二, 2003.
- 궁중유물전시관, 『종묘대제문물』, 2004.
- 이화여자대학교, 『옛 가구의 아름다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6.
-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1999.
-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소장③ 한국문화재』, 1997.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朝鮮王朝遺物圖錄』,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조선왕실의 책』, 2002.

〈論文〉

- 金美羅, 「朝鮮後期 文房家具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삼대자, 「李朝時代 燈燭器具에 對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 김세은, 「고종초기(1863-76) 국왕권의 회복과 왕실행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金信雄, 「朝鮮時代의 手工業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進宴을 중심으로」, 『韶巖權五聖博士華甲紀念 音樂學論叢』, 민속원, 2000.
- _____, 「1887년(고종 24) 神貞王后 八旬 경축 연향과 《[丁亥]進饌儀軌》」,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 1』,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 _____,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儀軌 고찰」,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박정혜, 「宜寧南氏 家傳畫帖」, 『美術史研究』 2, 미술사연구회, 1988.
- _____, 「儀軌에 보이는 畫具 研究」, 『미술사연구』 9, 미술사연구회, 1995.
- _____, 「19세기의 宮中宴享과 宮中宴享圖屏」,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국립국악원, 2000.
- _____, 「明憲太后 칠순 기념 辛丑年 進饌圖屏의 특징과 의의」,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논문집』 6, 한국궁중복식연구원, 2004.
- _____, 「대한제국기 진찬·진연의례와 궁중연향계병」,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6.
- 朴銀順, 「朝鮮後期 進饌儀軌와 進饌儀軌圖—己丑年 進饌儀軌를 中心으로」, 『民族音樂學』 17, 서울大學校 東洋音樂研究所, 1995.
- _____, 「조선후기 의례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제6집 별책, 한국국학진흥원, 2005. 6.
- 이성미, 「조선 인조—영조 년간의 궁중 연향과 미술」, 『조선후기 궁중 연향 문화』 권1, 민속원, 2003.
- _____, 「조선후기 進爵·進饌儀軌를 통해 본 宮中의 美術文化」, 『조선후기 궁중 연향 문화』 권2, 민속원, 2005.
- 이승관, 「고구려 고분벽화 묘주도의 좌구」, 『(향산 안휘준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2006.
- 李潤相, 「고종 즉위 40년 및 망옥순 기념행사와 기념물-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 『韓國學報』 111호, 일지사, 2003. 여름.
- 李迎春, 「朝鮮時代の 王室 典禮와 儀軌」, 『藏書閣』 창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孫智仁, 「朝鮮時代 繪畫에 보이는 小盤」,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장경희, 「19世紀 『進饌儀軌』의 工藝史的 研究-1887年 『丁亥 進饌儀軌』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4.
- _____,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崔公鎬, 「朝鮮末期와 近代期の 螺鈿漆器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_____,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미술사학연구』 194, 한국미술사학회, 1992.
- 최윤정, 「朝鮮時代 木製坐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韓永愚, 「大韓帝國 성립과정과 《大禮儀軌》」, 『韓國史論』 45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 _____, 「조선시대 儀軌 편찬 始末」, 『韓國學報』 28, 일지사, 2002.
- _____, 「조선시대 儀軌 편찬과 現存 儀軌 조사연구」,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관 미술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3. 中文 및 日文

〈圖錄〉

故宮博物院,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系 明清家具』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_____,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系 明清家具』下, 科學技術出版社, 2002.

上海博物館, 『上海博物館 中國明清家具館』, 2004.

王圻, 『三才圖會』卷三

王世襄 編, 『明式家具珍賞』, 文物出版社, 2003.

院長江 編, 『中國歷代家具圖錄大全』, 江蘇美術出版社, 1994.

編案會 編, 『明清家具』, 北京美術出版社, 2005.

韓永福 外, 『清代皇帝一天的生活』, 1994.

東京國立博物館 · 大阪歷史博物館, 『韓國の名寶』, 2002.

국문초록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가구는 궁중 연향에서 황제를 상징하거나 황제와 관련한 기물을 놓아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가구를 가리킨다. 궁중 연향용 가구의 양식적인 특징은 연향의 전모를 기록한 『進宴儀軌』, 『進饌儀軌』의 관련 기록 및 도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궁중 연향용 가구는 조선 초기부터 『國朝五禮儀』에 의하여 제작규범이 제시되었고, 의례가 있을 때마다 의궤를 제작하여 그에 맞게 가구의 형식이 변용되지 않도록 정해진 규범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특히 대한제국기에는 축소되었던 왕실의례의 회복과 왕실의 권한 강화 그리고 황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고종의 노력으로 연향이 성행하여 연향 관련 의궤가 활발히 간행되었다.

대한제국기 연향 관련 의궤를 통한 연구는 연향용 가구를 제작한 장인 조직의 체제를 파악하게 해주며 그 내용은 「賞典」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궁중 연향용 가구의 제작을 담당했던 小木匠, 漆匠, 假漆匠, 彫刻匠, 豆錫匠 등이 가구 제작에 참여한 날수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져 연향을 총괄했던 진연청 및 진찬소로부터 차등적으로 포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궁중 연향용 가구의 조형은 의궤의 도설을 기초로 쓰임에 따라 床卓, 坐具, 燈火具로 구분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는 대한제국기를 기점으로 가구의 색상이 조선시대의 朱漆과 黑漆에서 黃漆과 朱漆로 변화하고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문양을 시문하여 실용을 강조하기보다 황제와 궁중행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대한제국기라는 특수한 시대상이 반영된 특징이었다.

요컨대 대한제국기에는 덕수궁이나 창덕궁의 전각 내에서 프랑스에서 수입한 가구를 사용할 만큼 황실에서부터 외국의 문물을 활발히 도입했던 혁신적인 시대였으나 궁중 의례용 가구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부터 확립된 일정한 규범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작되었다. 그것은 선진 문물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에 힘쓰고자 하였던 반면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왕실의 의례를 회복하여 황실의 권한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선왕들이 유지해 온 궁중의례의 전통을 존중하고자 했던 고종 황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용 가구는 대상 시기가 약 10년간으로 짧고 현존하는 가구의 수가 많지 않아 양식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궁중 연향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기록한 『進宴儀軌』, 『進饌儀軌』를 분석하여 가구의 사용, 가구 제작을 담당했던 관아, 가구 제작에 참여했던 장인의 체제를 파악하고, 의궤의 도설을 시기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현존하는 유물을 대입하여 양식적인 특징의 일면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Abstract

Royal Court Banquet Furniture of the Korean Empire Period

Cho Shinae*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special kinds of furniture were used for court banquets. These pieces of furniture either symbolized the emperor and his imperial authority or served to place personal items belonging to the emperor. The appearance, stylistic characteristics and use of furniture of this type are detailed in chronicles documenting royal protocols such as *Jimyeon Uigwe* or *Jinchan Uigwe*, and illustrations contained within them. Guidelines on the fabrication of royal court banquet furniture had been set forth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in *Gukjo Oryeui* (Five National Rites). At each banquet, an *uigwe*, the document recording proceedings of a royal court event, was drawn up, as well as details of preparations. These *uigwe* records, maintained consistently over centuries, helped ensure that royal banquet furniture was fabricated according to the same specifications throughout the dynasty.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festive and ceremonial events hosted in the royal court, which was due in part to Gojong's desire to strengthen the prestige of the royal house and affirm the authority of his self-proclaimed position as the emperor. As a result, the production of *uigwe* commensurately increased as well during this period.

Uigwe records notably contain information on groups of artisans enlisted to fabricate banquet

* Researche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furniture for the royal court, in the section 'Sangjeon (Reward Rules)'. Artisans who participated in the fabrication of royal court banquet furniture, such as cabinet makers, carpenters, lacquer artisans, furniture priming painters, furniture sculptors and metal accessory artisans were assigned a grade between 1 and 3, and were accordingly rewarded by Jinyeoncheong and Jinchanso, the two royal agencies in charge of organizing court events. Once into the Korean Empire period, the colors of the banquet furniture changed from red and black to yellow and red. This was also accompanied by noticeable changes in decorative motifs. Practical aspects of furniture were largely sacrificed in favor of splendor and stateliness, with ornamentation now tending toward underlining the grandeur of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house.

The Korean Empire was an era that saw a lively exchange between the imperial house and the outside world, as attested to by furniture imported from France seen in Deoksugung and Changdeokgung Palaces. Foreign influences, however, were kept at bay concerning court banquet furniture, which was fabricated according to the same old specific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is in large part owing to the fact that Gojong saw the integrity of the tradition of Joseon's royal house as essential to the goal of strengthening his prestige as the ruler. Given the meager quantity of surviving royal banquet furniture produced during this relative short period of ten years, reconstructing facts about them was not an easy task.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gleaned from *uigwe* records from the Korean Empire period, about how furniture of this type was used, the court agencies in charge of supplying it, and the organization of artisans enlisted in its manufacture. Meanwhile, illustrations contained in *uigwe* were compared with surviving pieces of furniture to understan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banquet furniture from this era.